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

손으로 보는 세상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항상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점자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맙습니다”는 점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 자 일 램 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원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쓰	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 부호	.	?	!	,	-	~
	:	:	:	출입표(...)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ㅅ, ㅈ, ㅊ, ㅊ, ㅊ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C O N T E N T S



동국참사람봉사단



점자로 말해요 | 고맙습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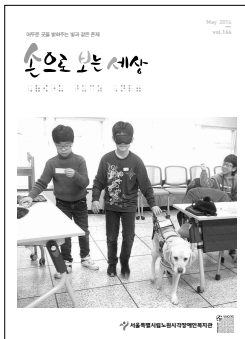
**테마기획 |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04**

**우리복지관에서는 | 태국 방콕에서 WBUAP 마사지세미나가 실시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녹음봉사 06**

**뉴스앨범 | 제9회 정보접근성 동향세미나 개최
2014 제2차 편의증진 교육 08**

**함께 사는 이야기 | 봉사활동으로 느끼는 따뜻한 마음 /
박민아(경기도 시흥시) 09**

**2014 05
vol. 166**



**인터뷰 | 화면해설영화 보러오세요!
장애인영화관람데이 담당자 이지혜 씨 10**

흰 지팡이 발자취 |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맹학교의 역사를 찾아서 12

**포커스 |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거리감을 좁히는
'장애체험스쿨'을 소개합니다! 14**

손으로보는세상 제20권 5호 통권 166호

발행일 2014년 5월 15일 발행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 소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우암에스타워 403호 전 화 02-950-0107 팩 스 02-934-8069 이 메 일 kbuhongb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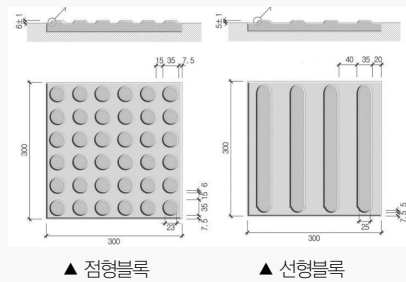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nowonblind.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제작 디코리아징(02-542-5064)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생활할 때 이동 및 시설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각종 건물과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으면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생활공간 전반에 장애물이 없는 환경 즉, 무장애 공간을 조성하면 장애인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편의시설은 **점자블록**입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을 할 때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점형블록은 목적지 전면, 굴절지점, 계단 등의 내부시설의 시작과 끝 부분 등을 알려주며 선형블록은 목적 방향까지 안전하게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자블록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석재, 콘크리트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30cm*30cm 크기의 일체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철재나 미끄럼을 유발하는 재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편의시설은 **점자표지판**입니다. 점자표지판은 계단이나 복도의 손잡이, 사무실 출입문 벽면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층수, 목적지, 진행방향 및 사무실 명 등의 정보를 점자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자표지판은 벽면형 점자표지판으로 벽면에 설치되기도 하고, 손잡이형으로 계단 손잡이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점자표지판의 설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자표지판에는 화살표, 목적지 층수, 목적지 시설명이 점자로 표기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주로 왼손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점자를 촉지하는데요, 점자방향은 우리가 주로 글씨를 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되며 손잡이에 벽 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여 설치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편의시설은 음성유도기와 음향 신호기입니다. **음성유도기**는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시설의 위치 및 실내배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하는데요, 음성유도기는 리모콘으로 동작 시키는 시설로 지하철, 기차, 버스 등의 대중여객 시설과 건물의 입구, 현관에 주로 설치되며 음성 출력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 음성유도기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의 신호등 지주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인데요, 신호등의 변화를 음성,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해 알려줍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지요. 적색불일 때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00교차 00방향 횡단보도입니다.”라고 소리가 나고, 녹색불이 되면 “(딩동댕) 00방향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라고 음향정보가 나옵니다.



▲ 음향신호기

태국 방콕에서 WBUAP 마사지세미나가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2회 WBUAP 마사지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4일에는 WBUAP 임원회의가 진행됐으며 5일부터 7일까지는 마사지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WBU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orld Blind Union)를 말하는데요, WBU는 전 세계 160여 개 국의 600여 개 시각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시각장애인 관련 NGO로서, 국제연합 UN 산하 경제사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WBU는 시각장애인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여러 사업을 기획 및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WBUAP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의 아시아·태평양지역분과(World Blind Union Asia and Pacific)를 말합니다.

이번 제12회 WBUAP 마사지세미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분과의 시각장애인이 모여 마사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마사지세미나에 참석하여 국가보고서 발표, 안마시연, 시각장애인고용촉진재단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학생들의 녹음봉사가 잇달아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동국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녹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김희옥 총장을 주축으로 참사람봉사단을 구성하여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를 제작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불경도서 2권을 녹음해 복지관으로 전달했으며 올해는 불경도서 2권, 학습도서 2권 총 4권을 녹음도서로 제작하여 전달해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내에 이동녹음부스를 직접 설치하여 수시로 학생들이 녹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음부스를 직접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한 시간대에 녹음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녹음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과 관련된 도서를 맡아 녹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제작 중인 녹음도서는 총 60여 권으로 이 중 26권이 제작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9회 정보접근성 동향세미나 개최

제9회 정보접근성 동향세미나가 5월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주관한 것인데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웹 접근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웹 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 제2차 편의증진 교육

지난 4월 30일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증진센터에서 '2014 제2차 편의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각장애인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방법,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편의시설 관련 업체 종사자, 한시련 지부, 지회 직원, 장애인 단체 종사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느끼는 따뜻한 마음



박민아(경기도 시흥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입력봉사를 시작했던 때가 떠오른다. 대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이었던 7월 말 한 여름이었던 그 때, 더위가 폭폭 느껴지는 시기였다. 내리 쬐는 햇볕이 강렬해서 미간은 저절로 찌푸려졌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로 조금만 걸어도 더위가 온몸을 관통하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부끄럽지만 지금에 와서야 고백하자면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백 퍼센트 자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학 중이던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사회 봉사였다.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를 다니던 4년 동안 '다음 방학 때 하지 뭐'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매번 다음을 기약하다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여름방학을 맞이하고서야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봉사기관을 선택할 때는 수강신청으로 강의를 고르는 것처럼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방학 때 30시간 이상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했기에 집에서도 위치가 가까웠으면 좋을 것 같았고 비교적 쉬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다. 사실 이 때까지만 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단순히 컴퓨터로 문서를 작업하는 입력봉사를 한다고 생각했지 별 다른 생각은 없었다.

입력봉사를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복지관을 갔었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다. 사실 그 전에는 주위에서 시각장애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이 책이나 영화, 텔레비전을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각장애인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입력봉사를 하게 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입력한 책이 전자도서가 되어 시각장애인분들이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흔히들 봉사는 내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이 혼한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 전에도 막연하게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시간에 치이고 일상에 치여 봉사를 어렵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입력봉사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해 관심도 많이 생기고 전자도서뿐만 아니라 음성도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녹음봉사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녹음봉사를 시도했을 때 긴장도 많이 되고 실수를 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점차 횟수가 늘어갈 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많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나의 녹음봉사로 하여금 책을 읽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함은 더 커졌다.

앞서 말한 대로 학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봉사였지만 이러한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 그 이상의 의미였다. 학교에서 지정한 30시간을 훌쩍 넘기고도, 또 졸업을 하고 나서도 봉사의 참 맛을 잊지 못해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물론 내가 시각장애인분들의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을 면면히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여 입력봉사, 녹음봉사를 하면서 여러 시각장애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마음이 훈훈해진다. 이렇게 훈훈한 마음이 시각장애인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봉사하러 간다.



화면해설영화 보러오세요!

장애인영화관람데이 담당자 이지혜 씨를 만나다.

지난 4월 17일에는 용산 CGV에서는 화면해설영화 특별 상영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매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신간 영화 중 한 편을 화면해설영화로 제작하여 상영하는 '장애인영화관람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람이야기에서는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담당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이지혜 씨를 만나 보았습니다.





Q 매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장애인영화관람데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장애인영화관람데이는 매월 셋째 주를 장애인영화관람주간으로 지정하여 최신 영화 1편을 배리어프리 버전의 영화를 전국 16개 시·도에서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을 더한 영화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 및 상영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한국농아인협회, CJ CGV, CJ E&M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영화관람데이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혹시 신청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신청대상은 시각장애인과 동반 안내인 1명입니다. 신청방법은 지역별로 진행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02-950-0183),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041-413-7044), 울산시는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052-256-5245 내선372)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지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아시아드CGV, 영화의 전당 두 영화관에서 진행되는데 아시아드CGV 접수는 부산지부(051-462-3292)로, 영화의 전당 영화관 접수는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051-338-001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영화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장애인영화관람데이가 실시되면서 매달 화면

해설영화가 전국적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 영화를 제작 및 상영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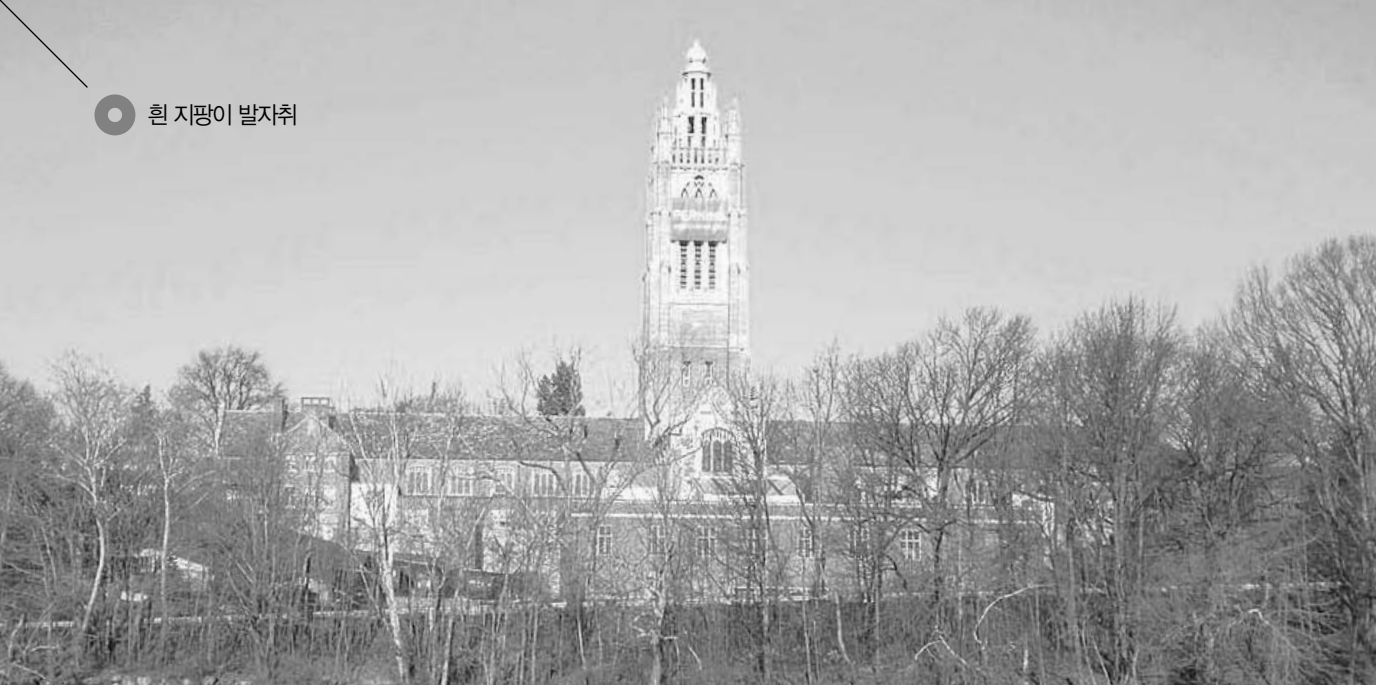
A 화면해설영화를 제작하다 보면 다양한 장르의 많은 영화를 화면해설영화로 제작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특히 화면해설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개봉 전에 영화 콘텐츠를 받아야 하는데 제작사 또는 배급사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화면해설 영화 상영을 모르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있어 관객을 모시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장애인영화관람데이를 운영하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인상 깊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A 시각장애인 관객이 화면해설영화를 관람하고 나서 영화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봤을 때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화면해설 영화가 전국적으로 매달 상영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의 폭이 넓어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Q 손으로 보는 세상 독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앞으로 감동적인 화면해설영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전국에서 상영하는 화면해설영화를 관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맹학교의 역사를 찾아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인 맹학교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이 시각 외에 다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며 특히 촉각과 청각을 활용한 교육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맹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의 특성에 맞춰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번 흰 지팡이 발자취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맹학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생긴 맹학교는 1784년 파리에 설립된 파리맹학교입니다. 파리맹학교가 설립된 후 여러 나라에서 파리맹학교에서 시행하는 시각장애인 교육을 보고 큰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미국의 안과의사 새뮤얼 하우는 프랑스 유학 당시 파리맹학교를 보고 시각장애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미국으로 돌아가 1830년에 미국 최초의 맹학교인 퍼킨스맹학교를 보스턴에 설립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헬렌 켈러 역시 퍼킨스맹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헬렌 켈러는 퍼킨스맹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청각장애학교에서도 공부하여 대학교 진학까지 성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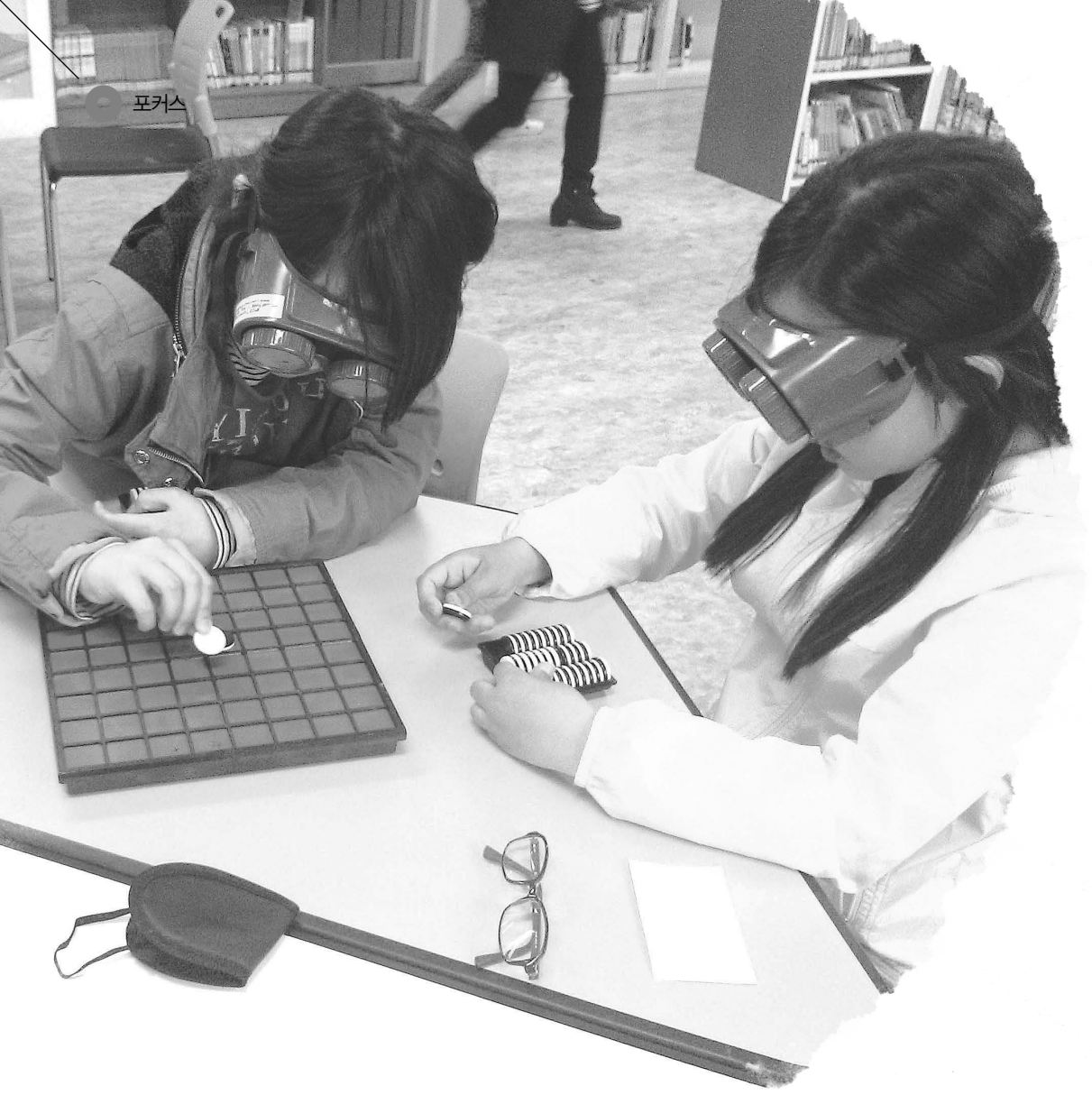
이처럼 퍼킨스맹학교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로 손꼽히며 기숙사제도와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퍼킨스맹학교는 영아원 시설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일반교육과 다름없는 교육과정과 특수 직업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신사유람단의 귀국보고서인 '일본문견사건'이나 유길준이 서양을 방문하고 작성한 '서유견문'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는 시각장애인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는 당시 서양의 특수교육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인 차아원,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인 맹인원, 농아인 교육기관인 아인원 등 장애의 특성별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당시 서양 특수교육이 '서유견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실시할 전문 인력이 없었고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에 의하여 특수교육이 실질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선교사 홀은 1894년 평양 여맹학교를 설립하여 시각장애인 소녀 오봉래 양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초기 평양맹아학교에서는 점자지도 외에 학생의 능력에 따라 성경, 지리, 음악,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점자 국문, 생리학, 산술, 음악, 영어 등 다양한 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 합방 후에는 점차 일본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그 당시에 맹학교에서 침, 구, 안마 등을 가르쳐 직업교육을 실시한 것인데요. 맹학교의 첫 제자인 오봉래 양은 동경맹학교 사범과에서 침안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직접 학생들에게 침, 구, 안마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시각장애인이 점복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1910년대에는 현재 서울맹학교의 시초인 제생원 맹아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제생원 맹아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임안수, 2010년)」 참고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거리감을 좁히는 ‘장애체험스쿨’을 소개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장애체험스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장애체험스쿨은 시각장애의 이해, 에티켓 교육부터 안내견, 점자체험, 시각장애인 보행체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체험, 시각장애인 여가·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각장애의 이해에서는 시각장애의 정의, 시각장애의 원인과 예방, 시각장애인 안내법에 대해 배우고 안내견의 이해에서는 안내견의 양성과정, 에티켓 등에 대해 배웁니다.

그밖에도 시각장애 보행체험에서는 흰 지팡이 체험, 안내법 체험을 하며 점자체험에서는 점자에 대해 배우고 직접 점자로 편지 쓰기, 점자 명함 제작 등을 합니다. 직접 안대를 끼고 흰 지팡이 보행 체험, 안내견 보행체험, 점자 체험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과 항공기 · 선박을 이용할 때 안내소 또는 발권창구로 안내해주세요.

항공기 이용의 경우 국내외 주요 항공사들은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안내, 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안내소 또는 발권창구로 안내해주세요. 선박의 경우 매표와 탑승 및 착석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전을 위해 비상구의 위치와 화장실의 위치를 미리 알려주시고 적절한 시간차이를 두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초·중·고·대학생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 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 및 접수 02-935-9696 박승만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 우리은행 1006-601-22725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 외환은행 170-22-00710-6